

신안군 고향사랑 기부로 여객선 만든다

전국 최초...지정 기부 시작

2027년까지 50억원 모금 목표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건조

신안군이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건조 위한 제1호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한다.

신안군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여객선 매입 및 건조를 추진하며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신안군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후 여객선 교체에 나선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50억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객선 매입 및 건조를 위한 지정기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모금 결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신안군에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할 새 선박을 건조하는 예산으로 전액 활용될 계획이다.

신안군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정 금

액 이상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을 건조될 선박에 명기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뜻을 기릴 방침이다.

신안군은 이번 지정기부 추진으로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 발전에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정기부는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도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연대와 기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섬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희망의 배 마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 롯데아울렛-마트 남악점이 전남 최초로 '식품안전심구역'으로 지정됐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식품안전심구역 지정 안전 외식환경 조성

롯데아울렛 남악점서 지정식

무안군이 전남 최초로 '식품안전심구역'을 지정하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롯데아울렛-마트 남악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식품안전심구역' 지정식을 열고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본격 나섰다

지정식에는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의원, 군의원,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장, 롯데아울렛-마트 남악지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약처와 함께 소포장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방문해 식품안전심구역 지정을 축하하

고 위생관리 향상에 힘써준 영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식품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청결도, 식재료 보관상태, 개인위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매우 우수·우수·중음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전심구역'으로 지정한다.

무안군은 롯데아울렛-마트 남악점 내 음식점 26개소 중 22개소(85%)가 위생등급을 받아 전남지역 최초로 식품안전심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식중독 예방관리, 자율위생관리 교육 등을 통해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서해해경청, 10~21일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계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계센터(군산광역시, 목포광역시, 여수항, 여수연안, 완도항 VTS)는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계센터(VTS)에서 적법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

로 초단파무선전화(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이 8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기간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계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계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추진

영광군이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2인 이하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서 작업할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은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팽창식 구

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보조율은 8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 가능하다.

군은 마을 방송, 문자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형어선의 경우 전복 시 생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어업인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경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천사펀드' 1억원 돌파...긴급 생활안정자금 34명 지원

10개월 만에 총 62건 기부

지역 상생모델 나눔문화 확산

영암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암형 사회적 금융 '천사펀드' 누적 기부금이 1억원을 달성했다. 영암군 천사펀드는 군과 영암신탁,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다. 무이자·무보증·무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사각지대에 있는 영암군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펀드 모금에 들어갔는데 현재 법인·단체 24건, 개인 38건 등 총 62건이 기부됐다.

기부받은 천사펀드를 바탕으로 34명의 영암군민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영암군 천사펀드 취지와 지원 효과가 알려지며 다양한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



우승회 영암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영암형 사회적 금융 '천사펀드' 기부금 기탁식이 열렸다. 〈영암군 제공〉

다. 최근 영암 군민의 날 하루 동안 기업·단체, 군민의 기부로 2200만원이 모이기도 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천사펀드는 영암군민이 이웃을 돕는 지역 상생 모델로 기부자와 수혜자

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투명한 기금 대출과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지역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산불 대응 체제 돌입

12월까지 '조심 기간' 운영

10개소 입산 통제 등 관리

완도군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완도군은 산불 방지 대응 체제 돌입에 앞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인력 선발과 각종 진화 장비 점검, 각 읍면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점검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진화용 헬기 배치와 산불 감시용 고정 카메라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취사 행위,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담뱃불 실화



완도군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한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활동 모습. 〈완도군 제공〉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산림과 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고 있다.

완도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고자 관내 전 산림에 대해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금지 행위를 공고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2870ha)에 대

해 등산로 폐쇄와 입산 통제로 집중해서 관리한다.

산불 발생 주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해서도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를 취약지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소각 행위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병(3,000ml)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